



[유통] 성장 멈춘 오프라인 이마트의 신세계는 온라인·글로벌 L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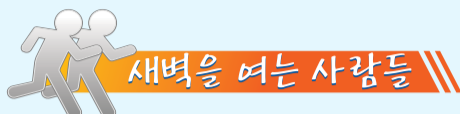


Life

[라이프] 단일매장 매출 세계 1위 롯데면세점의 飛上 L6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방송 제작의 '마라톤' 트랙 달리는 청춘 방송의 3D업종... 긍정 씨앗 뿌리는 자부심으로 일해요



EBS 다큐 '한국기행' 조연출 임기혁

세상이 소란하다. 방송·뉴스는 각종 사고와 비리를 비추고, 자극적인 소재의 미디어들이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세상의 아름다운 이면을 비추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도 있다. 교양·다큐멘터리 외주 조연출 임기혁(27) 씨가 여는 새벽을 들여다봤다.

지난 4일 이른 아침, 밤샘 작업을 마친 임 씨가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튜디오 작업실에서 나왔다.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눈꺼풀을 한 그와 인근 카페로 장소를 옮겼다. 커피 한 잔을 쪽 들이건 그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방송 업계로 진로를 정하기까지 꽤 길을 돌아왔어요. 엔지니어이신 아버지 영향으로 저도 대학교는 기계공학과로 진학했거든요. 그런데 대학 내내 교내 방송국에서 일하고 독립영화 조연출도 하면서 한눈을 팔았죠. 제가 좋아하는 일은 따로 있더라고요.”

임 씨는 편한 길보다는 어려운 길을 택했다. 10년 뒤, 20년 뒤에도 행복하려면 당장 안정적인 직업보다는 좋아하는 일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결국 그는 지난해 8월 교양·다큐멘터리 제작사에 입사해 현재 교육 방송 현장 다큐멘터리 '한국기행'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의 숨은 비경을 담아내는 프로그램인 만큼 그는 밤낮없이 곳곳을 촬영하러 다닌다고 했다.

“방송 제작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세분돼 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요. 작가와 PD가 기획하면 막내작가가 사전조사, 섭외 등의 프리프로덕션 단계를 수행하고 이후에 PD, 촬영감독, 조연출이 방송 성격에 따라 역할을 나눠 현장 촬영을 해요.”

그에 따르면 다큐멘터리의 경우 촬영이 끝나고 포스트프로덕션 단계로 넘어오면 종합 편집감독의 주도 하에 영상의 최종본을 만들고, 음향감독과 내레이션 등의 각종 음향작업을 해 오디오의 최종본을 만든다. 영상과 오디오를 합치면 비로소 하나의 프로그램이 완성되는데 여기에도 담당CP와의 회의, 심의위원회의 평가 등이 반영돼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쳐야 한다.

임 씨는 하나의 영상이 만



교양·다큐멘터리 외주 조연출 임기혁 씨.

편한 길보다 좋아하는 길 택해 교양·다큐멘터리 제작사 입사 방송 제작 과정 조율·진행해

육체적·정신적 고단함에 힘들지만 세상의 아름다움 담는 연출가 되고파

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마라톤'이라고 표현했다. 그렇다면 트랙을 달리는 동안 조연출은 무슨 일을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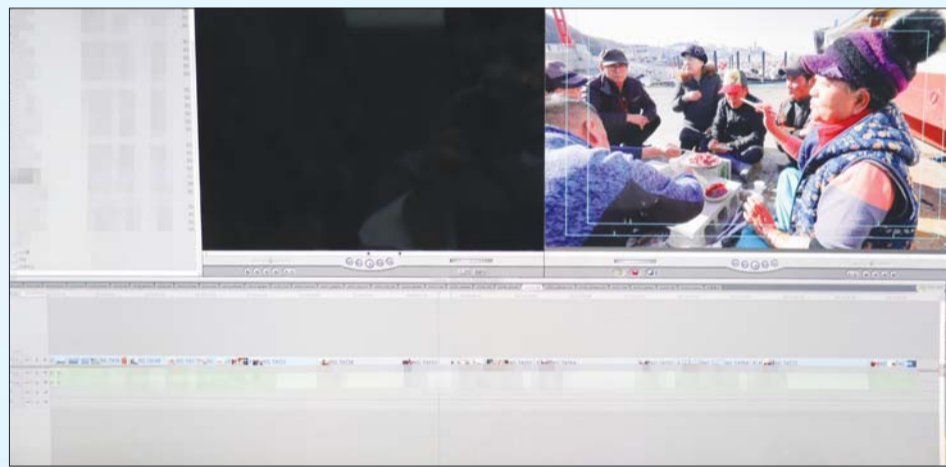
“조연출은 이 모든 과정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요. 이 복잡한 과정을 모두 지원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죠. PD와 일심동체가 돼서 며칠씩 퇴근도 못하고 붙어 있는 게 다반사예요.”

흔히 방송 업계에선 조연출을 '3D 직종'으로 표현하곤 한다. 근무 시간에 비해 급여가 적고 신체적·정신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예민한 문제지만 조연출은 심리적·물질적 부분에서 상당히 불안함을 느껴요. 근무 시간이 많지만 급여가 적은 편이니까요. 특히 외주 업체는 본사에서 일하는 동년차 직원보다 급여가 적고, 외부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해야 해서 제작과정이 더 번거로워요. 육체적·정신적 고단함을 극복해낼 의지가 있어야 해요.”

연출가를 꿈꾸는 임 씨는 PD로서 갖춰야 할 다양한 소양이 많다고 했다.

“연출가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임기응변 등도 필요해요. 다큐멘터리를 찍다 보면 배 타러 가서 풍광주의보를 만나거나, 단풍 찍으러 가서 녹음만 보는 일도



임기혁씨가 편집하는 작업물.



지난 4일 새벽 교양·다큐멘터리 외주 조연출 임기혁 씨가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 스튜디오 작업실에서 방송 편집을 하고 있다.

비밀비재해요. 그만큼 변수가 많은데 그때마다 재치 있게 풀어나갈 머리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조연출들이 선배 PD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적성을 의심하고 반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더 많이 노력해야죠. (웃음)” 그는 우리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연출가로서의 꿈이라고 전했다. “세상의 어두운 면을 조명하는 사람

이나 방송은 충분히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세상의 아름다운 면을 보여주고 싶어요. 미처 몰랐던 타인의 이야기, 보기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요. 제가 만든 방송으로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생기면 흥행 여부와 관계없이 만족할 수 있어요.”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